


## 1) 박은정 검사, 윤 대통령 겨냥 "누구처럼 '쇼' 하지만' 했겠나"

성남 FC 사건 "몸을 던져 무마했다"는 전주혜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박

22.10.12 15:38 | 최종 업데이트 22.10.12 15:38 |

 이정환(bangzza)



박은정님이 상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1일 ·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님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박은정이 몸을 던져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에 간략히 입장 올립니다.

아마도 의원님께서는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시어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만, 저는 이미 해당 기사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처럼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노력하며 "저기 두고 가" "쇼 하지만"라고 했겠습니까.

수사무마, 수사방해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에서 수사방해 중대비위가 인정된 그분 사건이 전형적이겠지요. 수사무마의 본보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중인 명단에 포함된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불러주신다면 성남FC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증언할 것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수사 무마의 본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작년에 제대로 수사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11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마도 의원님께서는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시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이미 해당 기사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가 누구처럼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노려보며 '저기 두고 가' '쇼 하지마'라고 했겠냐"고 주장했다.

이는 채널 A 사건 감찰 계획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상황에 대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국회 증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 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 전 감찰부장은 '감찰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묻는 질의에 "(윤 당선인이)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굵고 화난 목소리로 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라고 하셨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쇼하지 말라'며 격분했다"는 등의 답변을 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수사 무마, 수사 방해는 채널 A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에서 수사방해 중대비위가 인정된 그분 사건이 전형적일 것"이라며 "수사 무마의 본보기는 따로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검사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을 기사로 접했다"면서 "불러주신다면 성남 FC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증언할 것이다. 연락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